

『직지』의 ‘無心’에 관한 서지적 변증

A Bibliographical Corroboration of the Idea of ‘Musim’ Presented in *Jikji*

金 聖 洙 (Kim, Sung-Soo)*

◁ 목 차 ▷

- | | |
|-------------|-------------|
| 1. 서 론 | 5. 마조도일의 無心 |
| 2. 육조혜능의 無念 | 6. 결 론 |
| 3. 하택신회의 無念 | <참고문헌> |
| 4. 남양혜충의 無心 | |

< 초 록 >

본 연구에서는 백운경한(白雲景閑)이 초록한 『직지』 중에서 ‘백운화상의 무념·무심’에 관한 정체성(正體性)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서지적 변증(辨證)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직지』에 초록된 ‘혜능·신회의 無念’ 및 ‘혜충·마조의 無心’을 각각 제시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둘째, 제시된 계승·법어에 대한 각각의 전거(典據)를 검색하고, 검색된 전거에서 각각의 원문(原文)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셋째, 각 전거에서 파악된 내용 및 그 핵심들이 『백운화상어록』에서는 과연 어떻게 융해되어 각각 표출되고 있는가를 고찰하여 봄으로써 ‘백운의 무심’에 관한 정체성을 도출(導出)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백운화상어록』에서 도출된 관련 내용에 입각하면, 『직지』에 제시된 ‘백운의 무심(無心)’은 마조도일(馬祖道一)·육조혜능(六祖慧能)·보리달마(菩提達磨)의 선사상(禪思想)에 그 철저한 기반(基盤)을 두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要語: 『직지(直指)』, 백운화상(白雲和尚), 백운경한(白雲景閑),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尚語錄)』, 무심(無心), 무념(無念), 서지적 변증(辨證)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anmail.net)

접수일: 2014년 3월 3일 최초심사일: 2014년 3월 15일 심사완료일: 2014년 3월 20일

<ABSTRACT>

In this research, a bibliographical analysis was done to ascertain more clearly the conceptual identity of ‘Munyeom and Musim of Baegun Hwasang’ presented in *Jikji* which Baegun Gyeonghan(白雲景閑) had abstracted.

First, the concepts of ‘Munyeom of Hyeneung and Sinhoe’ and ‘Musim of Hyechung and Majo’, both abstracted in *Jikji*, were presented and their contents were examined.

Second, the references of the songs and speeches for praising Buddha were investigated, and the original contents of each reference were examined in detail from bibliographical viewpoints.

Third, an attempt was made to extract the identity of ‘Musim presented by Baegun’ by examining how the contents and core concepts identified from each reference were expressed and integrated into *Baegun Hwasang Eorok*.

The result confirms that based on the contents extracted from *Baegun Hwasang Eorok*, ‘Musim of Baegun’ presented in *Jikji* was firmly founded on the idea of ‘Seon(禪)’ advocated by Majo Doil(馬祖道一), Yukjo Hyeneung(六祖慧能), and Bori Dharma(菩提達磨).

Key words: *Jikji*(『直指』), *Baegun Hwasang Eorok*(『白雲和尚語錄』), Baegun Hwasang(白雲和尚), Baegun Gyeonghan(白雲景閑), Musim(無心), Munyeom(無念), Bibliographical Corroboration

1. 서론

周知하는 바와 같이, 「직지」의 정식서명(完全書名)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지 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은 ‘백운화상(白雲景閑)이, 부처와 조사(佛祖)들이 곧바로 가리킨(直指) 바의 핵심요체(心體)인 중요한 구절(要節)들을 엄중하게 가려 뽑아서 기록(抄錄)한 책¹⁾이라 할 수 있다. 즉 백운화상은 자신의 깨침(大悟)²⁾인 ‘무념진종(無念眞宗)’의 참된 이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종(禪宗)의 역사서라 할 수 있는 「景德傳燈錄(1004)」을 비롯하여 「六祖檀經(681)」·「祖堂集(952)」·「碧巖錄(12世紀初)」·「無門關(1229)」·「五燈會元(1252)」·「四家語錄(宋初)」·고려 혜심(慧諶)의 「선문염송(禪門拈頌: 1226)」 등의 여러 자료들을 전거(典據)로 하여, 과거7불에서부터 석가모니와 인도의 28조사 및 중국·한국의 역대 조사들의 법어와 계송 등을 초록(抄錄)함으로써 마침내 「직지」를 편찬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래에 필자는, 형태서지학적 측면에서 「직지」를 인쇄한 금속활자(興德寺字)의 주조형태 등을 고찰하는 한편,³⁾ 주제서지학적 측면에서 「직지」에 표방된 ‘백

1) 「직지」의 제목에 사용된 ‘抄錄’의 개념은, 현재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논문의 압축·요약의 의미로 사용되는 ‘abstract’가 아니라, 漢文에서 ‘抄錄’의 원래 의미와 같이 ‘긴요하게 소용(所用)되는 것만을 뽑아서 기록(記錄)함’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2) 禪家에서는 ‘깨침[大悟]과 ‘깨달음[覺]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깨달음’이란 학문적인 지적(知的) 세계에서 종래에 몰랐던 것을 좀 알았다는 정도의 단순한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깨침’이란 지적(知的) 세계가 송두리째 난파하는 대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즉 ‘깨침’이란 불퇴전(不退轉)의 信心으로 禪을 參究하여, 본래 緣起의인 존재인 인간이 잘못하여 비연기적으로 살다가 그 잘못됨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연기적인 삶으로 되살아남으로써, 석가모니와 역대의 祖師들이 깨친 바와 동일한 진리를 몸소 질실하게 체험한 이른바 ‘悟道의 世界’를 의미한다(박성배 저, 우철원 옮김, 『깨침과 깨달음』(서울: 예문서원, 2002), 8-9. 참고).

3) ① 김성수, “「직지」의 인쇄상대 분석에 입각한 興德寺字의 주조형태에 관한 고찰,” 『書誌學研究』 제56집(2013. 12), 43-79.

② 김성수, “한국 금속활자 시원의 원천기술 및 흥덕사자의 주조법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54집(2013. 6), 75-102.

③ 김성수, “고려시대 금속활자본의 특징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제97집(2013. 4), 39-64.

운화상의 無心'에 대한 연구도 지속하였다.⁴⁾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필자의 기존 연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직지』에 초록된 '無念·無心' 관련 법어(法語) 등에서 황벽희운을 제외한 '육조혜능·하택신희·남양혜충·마조도일'에 국한하여, 이들 4인과 관련한 '무념·무심'이라는 용어가 직접 記入된 계송·법어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⁵⁾

첫째, 『직지』에 초록된 위 4인 禪師의 조(條)에서 '무념·무심'이라는 요어(要語: key-word)가 기입된 계송(偈頌)·법어들을 제시하고, 해당 기록에서의 '無念·無心'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첫째에서 각각 제시된 계송이나 법어 기록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전거(典據), 즉 그 원전(原典)의 출처(1차 자료)문헌을 검색하여 제시하고, 해당 전거의 원문(原文)이 의미하는 '무념·무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위와 같은 각각의 전거에서 제시된 '무념·무심'의 내용들이 백운화상의 설법집인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尚語錄)』에서는 과연 어떻게 용해(溶解)되어, 각 설법에서 실제로 어떠한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직지』에서 표방되고 있는 '무념·무심'에 대하여, 위와 같은 3단계의 서지적 변증(辨證)을 통하여 백운화상의 깨침(大悟)인 '無心'의 실체(實體)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명해 보고자 한다.

4) ① 김성수, “『직지』의 내용분석을 통한 백운화상의 '무심'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5집(2013. 9), 183-225.

② 김성수, “백운화상의 '無心'에 관한 서지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4호(2012. 11), 119-146.

5) 본고에서 '황벽희운의 무심'을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황벽희운의 무심은 『직지』의 무심에서 '無心의 結實'로 보았기(김성수, “『직지』의 내용분석을 통한 백운화상의 '무심'에 관한 연구,” 183-225) 때문에 논술할 분량이 너무 많은데 起因한다. 따라서 황벽희운의 무심과 관련한 논술은 차후 제목을 달리하는 독립된 論考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 육조혜능의 無念

필자는 “『직지』의 내용분석을 통한 백운화상의 ‘무심’에 관한 연구”에서, 백운화상의 「직지」 초록 중에서 ‘혜능·신회의 무념’을 ‘무심의 배아(胚芽)’ 단계로 보았다. 왜냐하면, ‘무념’이라는 용어는 육조혜능(六祖慧能: 638-713)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고, 혜능의 제자인 하택신회가 그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켰음을 파악하였기 때문이다.⁶⁾

첫째, 「직지」에 초록된 ‘혜능의 無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직지」上卷에 혜능의 법어·게송 등은 모두 10首가 초록되고 있다. 그 중 ‘無念’이라는 요어가 기입된 게송은 ‘『직지』 상권 六祖[慧]能大師(條) 第10首’인 “생각이 없으면(無念)”이다. 즉,

[혜능은] 또 [게송으로] 말하였다. “생각이 있으면(有念) 그 생각이 샅되게 되고 / 생각이 없으면(無念) 그 생각이 바르게 된다(又云 有念念成邪 無念念即正).”⁷⁾

라 하였다. 이 인용문은 혜능이 법달(法達)⁸⁾에게 내린 게송의 일부로써, 그 전거의 원문은 ‘新編 宗寶本 『六祖檀經』 叅請機緣 第六’에서 확인된다. 즉,

“마음이 미혹하면 법화경이 [나를] 굴리고(읽고), 마음이 깨어있으면 [내가] 법화경을 굴리네(읽네). / [법화]경을 외운지 오래 되었어도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그 뜻(義)과는 원수가 된다. / 생각이 없으면(無念) 그 생각이 곧 바르게 되고,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이 샅되게 된다. / [생각이] 있고 없음을 함께 헤아리지 않으면, 흰 소가 끄는 수레(白牛車)를 항상 타고 노닐리라.”(心迷法華轉 心悟轉法華 / 誦經久不明 與義作讎家 / 無念念即正 有念念成邪 / 有無俱不計 長御白牛車)⁹⁾

6) 김성수, “『직지』의 내용분석을 통한 백운화상의 ‘무심’에 관한 연구,” 183-225.

7)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하 「直指」로 약칭함)』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18張 2面.

8) 法達: 『傳燈錄』 제5권에 수록되어 있는 ‘洪州法達’은 혜능의 5대 제자(청원행사 등) 보다 먼저 채록(採錄)되어 있다. 따라서 법달은 혜능의 초기 제자로 추정된다.

9) 鄭丙朝 編解, 『六祖檀經』 (서울: 韓國佛敎研究院, 1998), 113. 참고.

라는 계송이다. 따라서 위 인용문의 전거는 바로 『육조단경』임을 알 수 있다.¹⁰⁾ 여기에서 혜능의 ‘생각이 없으면(無念) 그 생각이 바르게 된다.’라는 구절의 의미는 혜능의 법어가 수록된 『육조단경』에서 좀 더 상세하게 고구하여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위와 같은 ‘혜능의 무념’ 계송에 대하여, 그 전거인 『육조단경』 중 ‘돈황본 『육조단경』¹¹⁾에서 ‘혜능의 무념’에 관한 설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 혜능은 ‘無念’에 대하여,

선지식들아! 법에는 ‘몰록[단박] 깨침[頓悟]¹²⁾과 ‘점차로 깨침[漸悟]’이 없다(法無頓漸). 그러나 사람에 따라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점차로 결합하고 깨친 이는 단박에 닳는다.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다(識自本[心] 是見本性).¹³⁾ 깨달으면 원래로 차별이 없으나 깨닫지 못하면 오랜 세월을 윤회하느니라. / 선지식들아, 나의 法門은 예부터 모두가 無念을 으뜸(宗: 마루[上樑]), 즉 근본정신[으로 삼고(無念爲宗),¹⁴⁾ 無相을 본체(體)로 삼으며 無住로 근본을 삼는다. … / ‘無念이라 하는 것은 생각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無念者 於念而不念)이요, … ‘모든 경계에 몰들지 않는 것을 無念이라고 하나니(於一切境(鏡)上不染 名爲無念), 자기의 생각

-
- 10) 『육조단경』은 그 異本이 많다. ①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종보본(宗寶本)이라고도 한다. ② 『육조대사법보대경(六祖大師法寶大經)』: 덕이본(德異本), 혹은 고려연우본(高麗延祐本)이라고도 한다. ③ 『소주조계산단조사단경(韶州曹溪山壇祖師壇經)』: 도원서대승본(道元書大乘本)이라고도 한다. ④ 『육조단기(六祖壇記)』: 흥성사본(興聖寺本)이라고도 한다. ⑤ 『남종돈교최상대승마하반야바라밀경(南宗頓教最上乘摩訶般若波羅蜜經)』: ‘돈황본 『육조단경』’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이본 중 돈황본이 가장 오래된 단경이고, 古來로 가장 많이 유포되었던 것은 ‘德異 序, 宗寶 跋’의 ‘신편 종보본’이다.
 - 11) 『육조단경』은 그 전래과정에서 이본(異本)이 많고 각각의 본문에 오탈(誤脫)이 심하였다. ‘돈황본 『육조단경』’의 출현으로 인하여 그 의심이 해결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돈황본 단경』을 기준으로 삼아 논술한다.
 - 12) ‘몰록(갑자기) 깨침’: ‘돈오(頓悟)’의 우리말 의미로 ‘단박 깨침’이라고도 한다. 이 단어를 英語로 옮길 때에는 ‘sudden enlightenmen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13) 바로 이러한 ‘識心見性’ 사상은 후일 중국 조사선에서 ‘卽心是佛’·‘直指人心 見性成佛’ 등의 心地法門(만법의 근원은 마음을 문체로 하는 것)의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14) 위 인용문에서 ‘중(宗)’이란 ‘宗要’ 또는 ‘宗旨’, 즉 혜능의 禪佛敎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가르침 또는 주장되는 요지(要旨)나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뜻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하 본고에서는 ‘宗’을 우리말로 옮길 때에는 그 문맥에 따라 ‘근본정신’·‘으뜸’·‘근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번역하였다.

위에서 경계를 떠나고 법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문(門)은 무념을 으뜸(宗: 근본정신)으로 삼느니라. 세상 사람이 견해를 여의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만약 생각함이 없으면 무념 또한 없다. / ‘없다(無)’고 함은 무엇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함(念)’이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 ‘없다(無)’함은 두 모양의 번뇌를 떠난 것이고, ‘생각(念)’함은 眞如의 本性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진여는 생각의 본체요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성품이 생각을 일으켜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見聞覺知) 것이지만, 일만 경계에 물들지 않아서 항상 자재한다. 『유마경』에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능히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분별하나 안으로 첫째 뜻(第一義)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⁵⁾

라 하였다. 즉 혜능은 위의 인용문에서 먼저 ‘자기의 본래 마음(本心)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見性) 것이다’라고 하여, 혜능 자신의 깨침(悟: 見性)을 위한 수행의 방법론(法門)은 바로 無念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혜능은 무념에 대하여 거론하면서, 본인의 法門은 바로 ‘무념을 근본정신으로 함(無念爲宗)’이라고 천명(闡明)하고 있다.

특히, 위의 인용문에서, 혜능은 ‘무념이란 생각하되 생각하지 않는 것(無念者於念而不念)’이라고 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무념에 관한 혜능의 정의는, 예컨대 ‘직지」 상권, 석가모니’조(條)에서 ‘지나가는 수레를 보았지만, 그 형상을 보거나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¹⁶⁾고 말한 깊고 그윽한 의미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15) [慧能 著], 法海 輯錄, 『敦煌本壇經』, 『古鏡』 (경남 합천군: 장경각, 불기2537), 77-79. “善知識, 法無頓漸 人有利鈍 迷(明)即漸契(勸) 悟人頓修. 識自本[心] 是見本性 悟即無差別 不悟即長劫輪迴. / 善知識, 我自法門 從上已來 『頓漸』皆立無念爲宗 無相爲體 無住『無』爲本. … 無念者 於念而不念. … 於一切境(鏡)上不染 名爲無念 於自念上離境(鏡) ‘不’不於法上念生. … 然此教門 立無念爲宗. 世人離見 不起於念 若無有念 無念亦不立. / 無者無何事 念者[念]何物 / 無者離二相諸塵勞 [念者念眞如本性] 眞如是念之體 念是眞如之用. [自]性(姓)起念 雖即見聞覺知(之) 不染萬境(鏡)而常自在. 維摩經 云 外能善分別諸法相 內於第一義而不動.”

16) 『直指』 卷上, 釋迦牟尼佛賢劫第四偈曰[條].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張 1面. “세존께서 니구울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실 때에 상인 두 사람이 와서 물었다. ‘혹시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 ‘못 보았네’ / ‘그렇다면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 ‘듣지 못하였네’ / ‘선정에 들어계셨습니까?’ / ‘선정에 들어 있지 않았네’ / ‘그렇다면 주무셨습니까?’ / ‘아니 잠자리에 들지도 않았네’ / 상인들이 찬탄하여 말하였다 /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세존께서는 깨어있으면서 보아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 라고 하면서 흰 천 두필을 바쳤다.”

볼 수 있다. 즉 ‘특정 사물(色: 예컨대 ‘수레’)에 대하여 나의 육신 중 그 색(수레)에 상응(相應)하는 나의 눈(眼)으로 보고(見) 인식하기는(念) 하지만, 그 색에 대하여 내 마음이 집착하여 거기에 물들거나(染) 또 다른 망념(妄念: 客塵煩惱)이 일어나지 않는다(念不起)’¹⁷⁾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석가모니가 ‘보되 본 것이 아니다’라고 한 의미와 혜능이 ‘생각하되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의미는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2) 혜능은 ‘무념’에 관하여, ‘무념이란 일체의 외부의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다시 부연(敷衍)하고 있다.¹⁸⁾ 즉 혜능은 無念에 대하여, ‘無라는 것은 주관과 객관(二相)의 상대적인 입장과 모든 번뇌를 여윈 것이고, 念이란 진여(眞如)의 본성을 생각하는 것으로, 진여는 생각(念)의 본체(體)요 생각은 진여의 작용(用)이다. 자기의 성품(自性)이 생각을 일으켜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見聞覺知),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자재한다.’라고 설파하고 있다.¹⁹⁾

위와 같은 혜능의 無念說은 자성청정(自性淸淨)한 진여의 본성이 반야의 지혜를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본성을 자각(自覺)하는 것이 돈오견성(頓悟見性)이고, 일체의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진여 본래의 입장을 무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무념인 진여 본체가 작용인 念을 일으켜서 일체의 사물을 관찰하고 있으며, 그 본체인 진여는 무념이기에 일체의 경계에 물들이 없이 자재한다는 것이다.²⁰⁾ 바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면, 『육조단경』에서 혜능이 제시하는 무념은 ‘외부의 경계에 대하여 일체의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본성의 본래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3) 혜능은 ‘좌선(坐禪)’에 관하여 설법하면서

17) 禪家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대경무심(對境無心)’이라고 한다. 즉 ‘외부의 경계(물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생각(念: 妄念)이 일어나지 않음((念不起)’을 일컬음.

18) 일반적으로 無心·無念이라고 말하면, 모든 생각을 없애고 마음을 허무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鄭性本, 『禪의 歷史와 禪思想』, (서울: 三圓社, 1994), 291).

19) 혜능은 이 문장 뒤에 『유마경』을 인용하여 ‘眞如의 體와 用의 논리’를 입증시키고 있다.

20) 정성본, 『禪의 歷史와 禪思想』, 292.

이제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이 법문 중에 무엇을 坐禪이라고 하는가? / 이 법문 중에 ‘일체의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일체의 경계에 생각[妄念]이 일어나지 않는 것(念不起)’이 ‘坐’이며, ‘안으로 본래의 성품(本性)을 보아 흠어짐이 없음(不亂)’이 ‘禪’이다.²¹⁾

라고 하여, 혜능은 ‘좌선의 ‘坐’는 일체의 경계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念不起)’이라 하였다. 이 사항은 바로 無念을 坐禪과 연계(連繫)하여 논술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즉 밖으로 일체의 경계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음은 無念의 입장이며, 안으로 본성을 보아 산란되지 않음은 돈오견성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념이란 ‘일체의 경계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4) 혜능은 ‘반야삼매(般若三昧)’·‘몰록 깨침(頓悟)’ 및 ‘무념’에 관하여

어떤 것을 般若라고 하는가? / 반야는 지혜(智慧)이다. 모든 때에 있어서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실천(行)하는 것을 곧 반야행이라고 하느니라. … 선지식들아! 마하반야바라밀은 가장 높고(最尊) 가장 높으며(最上) 제일(第一)이라, 머무름도 없고 가고 옴도 없다. 삼세의 제불들이 모두 이 가운데로부터 나와 큰 지혜로써 저 언덕에 이르러, 오음(五陰)의 번뇌와 진로(塵勞)를 쳐부수나니 … [이] 최상승법을 수행하면 결정코 成佛하여, 가는 것도 없고(無去) 머무름도 없으며(無住) 내왕 또한 없나니(無來往), 이는 정(定)과 혜(惠)가 함께 하여 일체 법에 물들지 않음(無染)이라. 三世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 가운데서 삼독(三毒)을 변하게 하여 ‘戒·定·惠’로 삼느니라. / 선지식들아! 만약 매우 깊은 법의 세계(法界)에 들고자 하고 반야삼매에 들고자 하는 사람은 곧 반야바라밀의 행(行)을 닦아야 하며 오로지 『금강반야바라밀경』 한 권만 지니고 읽으면 곧 자성을 보아(見性) 반야삼매에 들어가느니라. … / 선지식들아! 나는 [五祖] 홍인화상의 회하에서 한 번 듣자 그 말끝에 크게 깨쳐(悟) 진여의 본래 성품을 단박에(몰록) 보았느니라(頓見眞如本性). … 마땅히 반야의 관조를 일으키라. 잠깐 사이에 망념이 다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곧 자기의 참 선지식 이니라, 한 번 깨침에 곧 부처를 아느니라. / 자성의 마음자리(自性心地)를 지혜로써 관조하여 안팎이 사무쳐 밝으면(內外明徹)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 수 있고, 본래 마음을 알면 이것이 곧 해탈이며, 해탈을 얻으면 이것이 곧 반야삼매 般若三昧이며, 반야삼매를 깨치면 이것이 곧 無念이니라. / 어떤 것을 무념이라고 하는가? / 無念이란 모든 법을 보되 그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으며,

21) [慧能], 『敦煌本壇經』, 『古鏡』, 81. “今記汝 是此法中 何名坐(座)禪. / 此法門中 一切無碍 外於一切境界上 念不起(去)爲坐, [內]見本性(性)不亂爲禪.”

모든 곳에 두루하되 그 모든 곳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성품을 깨끗이 하여, 여섯 도적(六賊)²²⁾들로 하여금 여섯 문으로 달려 나가게 하나 육진(六塵) 속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물들지도 않아서 오고감에 자유로운 것이다. 이것이 반야삼매이며 자재해탈(自在解脫)이니 무념행이라 이름하느니라. /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도록 하지 말라. 이는 곧 법에 묶임이니 곧 변견이라 하느니라. / 무념법을 깨친 이는 만법에 모두 통달하고, 무념법을 깨친 이는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무념의 돈법(頓法)을 깨친 이는 부처의 지위(佛位地)에 이르느니라.²³⁾

라고 설법하고 있다.²⁴⁾

이상과 같이 「직지」에 초록된 ‘혜능의 무념’에 대하여 「육조단경」에 전거하여 그 내용적인 변증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혜능은 「육조단경」에서 ‘無念이란

22) 色·聲·香·味·觸·法.

23) [慧能], 『敦煌本壇經』, 『古鏡』, 94, 97, 102-103. “何名般若 / 般若是智慧 一切時中 念念不愚 常行智慧 即名般若行. … / 善知識, 摩訶般若波羅蜜 最尊最上第一 無住無去無來三世諸佛 從中出 將大智(知)惠到彼岸 打破五陰煩惱塵勞 … 最上乘法修行 定成佛 無住無去無來往 是定惠等 不染一切法 三世諸佛 從中變三毒 爲戒定惠. / 善知識, 欲入甚深法界 入般若三昧者 直修般若波羅蜜行 但持金剛般若波羅蜜經一卷 即得見性 入般若三昧. … / 善知識, 我於忍和尙處 一聞言下大悟(伍) 頓見真如本性. … 當起般若觀照 剎那間妄念俱滅 即是自真正善知識 一悟即知佛也. / 自性心地 以智慧觀照 內外明(名)徹 識自本心 若識本心 即是解脫 既得解脫 即是般若三昧 悟般若三昧 即是無念. / 何名無念 / 無念法者 見一切法 不著一切法 遍一切處 不著一切處 常淨自性 使六賊 從六門走出 於六塵中 不離不染 來去自由 即是般若三昧 自在解脫 名無念行. / 莫百物不思 常(當)令念絕 即是法縛(傳) 即名邊見. / 悟無念法者 萬法盡通 悟無念法者 見諸佛境界 悟無念頓法者 至佛位地.”

24) 위의 인용문을 요약하면, 1) 혜능은 지혜의 완성(般若波羅蜜)을 위한 수행을 위하여, 般若行이라는 최상승법을 수행하면 반드시成佛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다. 2) 혜능은 자신의 깨침(悟)에 대하여, “나는 오조 홍인화상의 회하에서 한 번 듣자 그 말끝에 크게 깨쳐 진여의 본성을 단박에 보았다”라고 하여 ‘몰록 깨침(頓見)’, 즉 돈오견성(頓悟見性)을 설파하고 있다. 3) 혜능은 “자성의 마음자리(自性心地)를 지혜로써 관조하여 안팎이 명철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本心)을 알 수 있고,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해탈이며, 해탈을 얻으면 그것이 바로 반야삼매이고, 반야삼매를 깨친 것이 바로 무념이다”라고 함으로써, 결국 돈오견성과 반야삼매를 無念으로 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4) 특히 혜능은 “어떤 것을 무념이라고 하는가?”라고 대중들에게 강하게 질문을 던지며 강조하고 있다. 이에 혜능은 무념에 관하여 ‘무념법이란 모든 법을 보되 그 모든 법에 집착하거나 물들지 않는 것이며, 무념의 돈법(頓法)을 깨친 이는 부처의 지위(佛位地)에 이른다.’라고 설파하고 있다.

외부의 경계에 대하여 일체의 망념(妄念)이 일어나지 않는 본성의 본래상태'라고 정의함으로써, 혜능의 無念爲宗은 자성청정한 진여의 본성이 반야의 지혜를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본성을 자각하는 것이 ‘돈오견성’이고, ‘일체의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진여 본래의 입장이 바로 무념이다’라고 주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혜능은 無念과 坐禪을 상통(相通)시킴으로써 돈오견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혜능은 ‘무념은 곧 해탈이고 견성이며 반야삼매이다’라고 천명함으로써 ‘무념법을 깨친 이는 부처의 지위(佛位地)에 도달한다’라고 설교하였다. 즉 無念이야말로 부처의 경지(佛地)로 건너가는데 가장 긴요(緊要)한 징검다리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비유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혜능은 자성청정심²⁵⁾의 자각과 ‘無念·無住·無相’의 반야바라밀의 실천을 일체화함으로써, 남종선의 새로운 기틀을 확립하였고, 마침내 중국 선불교의 종조(宗祖)가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혜능의 무념은 돈오견성을 위한 실천수행의 방법론으로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은 혜능의 무념에 대하여, 백운화상의 『백운어록』에서는 ‘혜능의 무념’이 과연 어떻게 용해되어 실제로 설법되고 있는가의 상황들을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백운화상은 ‘어전(御前)에서 공부한 사람을 뽑으라는 분부를 받고’에서,

저의 소견으로는 공부한 사람(工夫者)을 시험하는 데에는 … 가장 오묘한 방편(方便)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無心 또는 無念’이라고 합니다. 육조[혜능]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일체의 선(善)과 악(惡)을 생각하지 말라([無念]). 그러면 저절로 청정한 마음바탕(心地)으로 들어가, 맑고 항상 고요하면서도 오묘한 작용이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장졸상공도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一念不生: [無念]) 전체가 드러난다.”고 하였으며, 이

25) 自性清淨心: 『아함경』에서 ‘중생의 마음은 본래 청정한 것이었으나 객진번뇌에 휩싸여 마음이 더럽혀 있는 것일 뿐이다’라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법화경』과 『화엄경』 등 대승불교에서 발전되어, 『화엄경』의 ‘如來性起品’에서 ‘중생 개개인은 여래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지만, 단지 어리석은 중생은 이를 알지 못하여 信心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고 설하면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心佛衆生 是三無差別)’고 설하여 唯心哲學으로 발전된다.

문화 도위도 “곧장 위없는 보리로 나아가고, 일체의 시비(是非)에 상관하지 말라([無念])”라고 하였습니다.²⁶⁾

라 하여, 백운화상은 공민왕께 혜능 등의 法語를 그 증거로 제시하면서, 공부한 수행인을 가려 뽑는 시험의 가장 오묘한 방안, 즉 선(禪) 수행의 실천방법으로써의 무념·무심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백운화상은 깨침(悟)으로 나아가는 방법인 ‘일체의 선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 즉 無念이야말로 선 수행의 가장 오묘한 방편(方便)임을 주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 백운화상은 공민왕으로부터 흥성사(興聖寺)²⁷⁾의 주지(住持) 직책을 임명 받은 이후, 대중들에게 설법(興聖寺入院小說)할 당시에

[백운화상은]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산승(山僧: 백운)은 지난해 [양자강의] 강남과 강북을 돌아다니면서 선지식만 있으면 찾아뵙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무산 천호암 석옥(石屋) 노화상을 찾아뵙고, 수많은 날들을 곁에서 모시면서 오로지 무념진종(無念眞宗)을 배워 여래의 위없는 오묘한 도(道)를 원만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 ‘지금 생각해 보건대, 이 부사의삼매(不思議三昧)²⁸⁾는 실로 마음의 상념이 없어야 들 수 있습니다. … 오래도록 익혀 성취하고 나서는, 어떠한 마음의 상념 없이도 항상 삼매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²⁹⁾

라 함으로써, 백운화상은 중국에서 스승 석옥청공으로부터 배워서 크게 깨친(大悟) 바가 바로 ‘無念眞宗’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백운화상은 ‘如來의 위없는

26) 白雲和尚 [著], 釋璨 錄, “洪武庚戌(1370)九月十五日 承內教工夫選取御前 呈似言句,” 『白雲和尚語錄』, 『韓國佛教全書』 第六冊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0), 656a-b. “據我所見 驗人工夫者 … 又有最妙一方便 或以無心 或以無念 如六祖云 一切善惡都莫思量 自然得入清淨心體 湛然常寂 妙用恒沙 … 張拙相公云 一念不生全體現 李文和都尉云 直趣無上菩提 一切是非莫管.”

27) 周知하는 바와 같이, 興聖寺는 공민왕의 왕비였던 노국공주의 원당(願堂)이다.

28) 삼매(三昧)는 해탈(解脫)의 다른 이름이다. ‘부사의삼매’란 ‘불가사의한 해탈’을 의미한다. 『화엄경』이나 『유마경』을 ‘부사의해탈경’이라 한다.

29) 白雲和尚 [著], 釋璨 錄, “興聖寺入院小說,” 『白雲和尚語錄』, 『韓國佛教全書』 第六冊, 649b-c. “示衆云 山僧頃年 遊歷江南江北 但有善知識 無佛參見 … 末上尋參霞霧山石屋老和尚 許多日侍立左右 只學得箇無念眞宗 圓悟如來無上妙道 … 如今思惟 實無心想而入三昧 … 若久習成就 則更無心想.”

오묘한 道를 깨치는 방법은 오로지 무념진종을 배우고 익혀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본 장에서는 「직지」에 수록된 ‘혜능의 무념’ 즉 “생각이 없으면(無念)”을 제시하고, 그 典據인 ‘新編 宗寶本 『六祖檀經』 叅請機緣 第六’에서 그 原文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육조단경」 중 가장 명확한 「돈황본 단경」에서 ‘혜능의 무념’을 상세하게 고찰하여 보았다. 그 후 「백운화상어록」에 ‘혜능의 무념’이 어떻게 용해되어 설법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보았다. 그 결과, 첫 번째로 白雲景閑이 「직지」에서 수록한 ‘혜능의 무념’은, 「육조단경」에서 ‘無念이란 외부의 경계에 대하여 일체의 망념(妄念)이 일어나지 않는 本性의 본래상태’라고 정의하였고, 혜능의 無念爲宗은 自性淸淨한 眞如의 본성이 般若의 지혜를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본성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頓悟見性이고, ‘일체의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진여 본래의 입장이 바로 無念이다’라고 주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혜능은 無念과 坐禪을 상통(相通)시킴으로써 돈오견성을 제시하였고, ‘무념은 곧 解脫이고 見性이며 般若三昧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무념의 돈법(頓法)을 깨친 이는 부처의 지위(佛位地)에 이른다’고 설파하였다. 즉 혜능의 무념이야말로 깨침을 위한 가장 緊要(緊要)한 수행방법임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혜능은 自性淸淨心の 自覺과 ‘無念·無住·無相’의 반야바라밀의 실천을 일체화함으로써 南宗禪의 새로운 기틀을 확립하였고, 마침내 중국 禪佛敎의 宗祖가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혜능의 무념은 깨침(大悟)을 이루는데 가장 緊要한 역할, 즉 돈오견성을 위한 실천수행의 방법론으로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혜능의 무념’은 「백운어록」의 ‘御前에서 공부한 사람을 뽑으라는 분부를 받고’ 등의 설법 등에서 온전하게 용해되어, ‘무념이야말로 깨침(大悟)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오묘한 수행 방법(方便)’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하택신회의 無念

하택신회(荷澤神會: 684-758)³⁰⁾는 혜능의 수제자로서 南宗禪의 실질적인 설립자이며, 스승 혜능을 ‘六祖’³¹⁾의 지위에 앞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애를 투쟁하여 승리한 불굴의 名僧이다.³²⁾

첫째, 『직지』에 초록된 ‘신회의 무념’과 관련한 법어 2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직지』 상권 荷澤神會禪師(條)의 제1수’에서,

하택신회 선사가 대중에게 설법하였다. “하나의 물건도 생각하지 않는 것(不思一物)이 바로 자신의 마음(自心)이다. 이것은 지혜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달리 별다른 수행도 없다. 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참다운 삼매(三昧)에 든 것이다. 법에는 가고 옴이 없으며 앞뒤의 경계도 끊어졌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無念’이야말로 가장 높은 법(最上乘法)이다. 여러 공부하는 대중에게 알리노니, 밖으로 내달리며 구하지 말라! 만약 최상승선(最上乘禪)이라면 응당 지음(作)이 없어야 한다.”³³⁾

라 하였다. 즉 신회는 ‘마음이란 하나의 물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며, 무념이야말로 최상승법이고, 최상승선에서는 응당 지음(作: 造作)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인용문이 수록된 정확한 전거문헌은 현재 잘 검색되지 않는다. 다만 위 인용문 전거자료의 관련 검색에서, 신회는 『菩提達磨南宗定是非論』에서

30) 하택신회의 생몰년도는 <荷澤神會塔銘>의 기록에 따름.

31) 보리달마를 초조(初祖)로 하여 제6대 조사(祖師: 嫡孫).

32) 신회는, 732년 1월에 하남성 활대(滑臺)의 大運寺에서 개최된 무차대회(無遮大會)에서, 神秀와 그 문하들은 보리달마의 방계(傍系)이고 그 가르침은 점오(漸悟)라고 역설하며 북종선(北宗禪)을 비판·평하하였다. 그리고 그는 달마로부터 五祖 홍인에서 혜능으로 이어지는 南宗禪이야말로 정통(正系)임을 주장하면서, 일생을 남종선의 현창(顯彰)운동에 진력하였다. 신회의 돈오선(頓悟禪)은 중국 선불교를 본격적으로 개막한 사상적인 확립을 이룩하였다.

33)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2張 1面. “荷澤神會禪師 示衆云 不思一物即是自心 非智所知 更無別行 悟入此者眞三摩提 法無去來 而前後際斷 故知無念爲最上乘 告諸學衆 無外馳求 若最上乘禪 應當無作.”

지금坐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念不起)’을 ‘坐’로 하고, 지금禪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본성을 보는 것’을 ‘禪’으로 한다.³⁴⁾

라고 한 것을 특히 주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無念의 입장을 말하는 것인데, 신회는 “무념은 곧 반야바라밀이며, 동시에 一行三昧이기도 하다.”³⁵⁾라고 강조하였다.³⁶⁾ 이와 같이 신회가 좌선에 관한 정의에서無念을 설파하고 있는 사항은, 혜능의 『육조단경』에서 “밖으로 일체의 경계에 생각(念: 妄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坐’이며, 안으로 본래의 성품(本性)을 보아 흠어짐이 없음(不亂)이 ‘禪’이다”라고 좌선을 정의한 설법을 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신회의 무념은 그의 스승인 혜능의 무념을 한 층 더 구체화시켜서 전개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2) 「직지」 상권 荷澤神會禪師(條) 제2수’에서,

[하택선사가] 또 말하였다. “無念을 근본정신으로 삼고(無念爲宗), 조작(造作)이 없음(無作)을 바탕(本)으로 삼아야 한다. / 무릇 진여³⁷⁾는 無念이라. 생각으로 능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상(實相)은 생겨남이 없음이니, 어찌 몸(色)과 마음으로 능히 볼 수 있겠는가? 無念으로 생각하는 것은 곧 진여를 생각하고, 생겨남이 없음(無生)으로 생겨남은 곧 실상을 냄이다. 머무름이 없이 머무는 것은 항상 머무는 열반(涅槃)이요, 행함이 없이 행함은 곧 저 언덕(彼岸)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생각 생각마다 구함이 없으니, 구하여도 본래 無念이다.”

([荷澤神會禪師] 又云 無念爲宗 無作爲本 / 夫眞如無念 非想念而能知 實相無生 豈色心而能見 無念念者 卽念眞如 無生生者 卽生實相 無住而住 常住涅槃 無行而行 卽超彼岸 / 念念無求 求本無念)³⁸⁾

34) 神會, 『菩提達磨南宗定是非論』, 胡適校敦煌唐寫本 『神會和尚遺集』 (台北: 美亞書版公社, 民國59(1970)), 287-288(鄭性本, 『中國禪宗의 成立史研究』 (서울: 민족사, 1991), 531. 재인용). “今言坐者 念不起爲坐 今言禪者 見本性爲禪.”

35) 신회는 『菩提達磨南宗定是非論』에서 “是無念者 卽是般若波羅蜜 般若波羅蜜者 卽是一行三昧”(정성본, 『中國禪宗의 成立史研究』, 532)라고 말하고 있다.

36) 또한 신회의 ‘見本性(자기의 본성을 보는 것)’은 견성을 말하는 것으로 자성의 자각, 즉 깨침(悟)을 의미하고 있다.

37) 眞如: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뜻으로, 우주 만유(萬有)의 본바탕(本體)인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진리’를 말함.

38)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2張 1面.

라 하였다. 즉 신회는 無念을 특히 강조하여 ‘無念爲宗’을 제시하고 있다.

위 인용문의 전거는 『전등록』 제30권, 『荷澤大師顯宗記』에서 확인된다. 즉

無念을 으뜸으로 삼고(無念爲宗) 無作(조작이 없음)을 근본(本)으로 삼으며, 眞空을 바탕(體)으로 삼고 妙有를 작용(用)으로 삼아야 한다. / 무릇 眞如라 함은 無念이니, 생각(想念)으로는 능히 알 수 없다. 實相은 생겨남이 없으니, 어찌 몸과 마음(色心)으로 능히 볼 수 있으랴. 무념의 念은 곧 진여를 생각하는 것이요, 無生이면서 생겨남은 곧 實相을 내는 것이다. 머무름이 없이 머무는 것은 항상 열반(涅槃)에 머무르고, 행(行)함이 없이 행함은 곧 저 언덕(彼岸)으로 초탈한다. 如如하여 움직이지 않으니 움직임의 작용이 다함이 없고, 생각 생각마다 구함이 없으니 본래의 무념을 구한다. …

(無念爲宗 無作爲本 眞空爲體 妙有爲用 / 夫眞如無念 非想念而能知 實相無生 豈色心而能見 無念念者 卽念眞如 無生生者 卽生實相 無住而住 常住涅槃 無行而行 卽超彼岸 / 如如不動 動用無窮 念念無求 求本無念 …)³⁹⁾

라 하였다. 이로 보면, 『직지』에 채택된 신회의 설법은, 위 전거[漢文]에서 다만 밑줄 친 두 개의 짧은 구절(句節)만이 생략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⁰⁾

위 전거에서 제시한 『하택대사현중기』에서는 “無念, 즉 망념이 일어나지 않음을 으뜸(宗: 근본정신)으로 삼고, 造作이 없음을 근본(本)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당부함을 특히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용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에서 신회는, ‘無住 · 반야바라밀 · 頓悟 · 見性’ 등을 계속 설하면서 반야사상을 구체적으로 논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신회는 無念의 근거에 있는 각자의 본성을 곧바로 자각하는 돈오견성을 주장한다. 이와 같이 신회가 『보리달마남종정시비론』에서도 제시한 ‘念不起’ 및 『하택대사현중기』에서 제시한 ‘無念爲宗’ 등은 모두 신회가 주창(主唱)한 남종선의 돈오견성설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신회의 돈오견성설에서 無念에 대한 주장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신회어록』에 수록된 돈오와 무념에 관한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39) 荷澤, 『荷澤大師顯宗記』, 『傳燈錄』 제30권. 이월은, 『전등록』 3 (서울: 동국역경원, 2008), 661.

40) 즉 『직지』에서는 이 두 구절을 생략하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보았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

… 모름지기 근원적인 道理와 智慧로써 아울러 해석해야 한다. 그것이 돈오(頓悟)라고 말하는 것이다. 모든 階段(漸)에 의한 것이 아니다. 自然, 이것이 돈오의 의미이다. 자기의 마음(自心)이 본래부터 空寂한 것이 돈오이다. 마음에 연을 바가 없는 것이 돈오이다. 마음이(卽心) 바로 道인 것이 돈오이다. 마음이住하는 곳이 없는 것(無住)이 돈오이다. … 일념이 상응(一念相應)하면 곧 正覺을 이루게 되니 … 또 경(經)에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견성하면 佛道를 이룬다.’라고 하셨고 ‘용녀(龍女)가 잠깐 사이인 순식간(頓)에 보리심(菩提心)을 일으켜 正覺을 이루었다’라고 하셨다. … 오직 일념의 상응에 있을 뿐 … / 상응의 의미란 無念을 보는 것을 말한다. 무념을 본다는 것은 自性を 깨닫는 것을 말한다. 자성을 깨닫는 것이란 無所得을 말하는 것이다, 그 무소득이 바로 如來禪인 것이다.⁴¹⁾

라 하였다. 신회는 여기에서 ‘마음이 바로 道이며 곧 돈오이다. 一念이 상응하면 正覺을 이루며, 일념상응의 의미란 곧 ‘無念’을 보는 것이며, 무념을 본다는 것은 自性を 깨닫는 것, 즉 見性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신회는 ‘無念의 실천은 곧 見性하는 것’이라고 일체화시킴으로써, 무념은 곧 견성을 위한 수행방법임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회의 무념은 혜능의 ‘無念爲宗’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은 신회의 무념 및 돈오견성의 주장들이 『백운화상어록』에서는 과연 어떻게 용해되어 표현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백운화상은 “해주 안국사에서 석옥화상의 재를 베풀고 설한 법문”에서

… 나는 본래 무심하지만 바라는 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섭(摩訶迦葉) 존자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석가세존의 정법안장인 위없는 법보가 오늘 자연스레 내게 이른 것입니다. … / 나의 덕행을 헤아려 보면, 이렇다 할 덕도 불만한 행도 없습니다. 나의 행은 ‘행이 없는 행’이고, 마음은 ‘마음이 없는 마음’이며, 생각은 ‘생각이 없는 생각(無念)’이고, 말은 ‘말이 없는 말’이며, 닦음은 ‘닦음이 없는 닦음’인데 … / … 나는 임진년 정월 이른 봄에 스승 곁에서 직접 훈습(薰習)을 받다가, 정월 보름 3일 전에 무심·무념의 진종(眞宗)에 은밀히 계합하였습니다. … 나 이제 [석옥창공 스승의] 전법계(傳法揭)를 받아 깨치지 못한 이들을 나처럼 증득(證得)케 하리라.⁴²⁾

41) 神會, 『菩提達磨南宗定是非論』, 『神會和尚遺集』, 130(정성본, 『中國禪宗의 成立史研究』, 543. 재인용).

42) 백운화상 [저], 釋璨 錄, “至正甲午六月初四日 禪人法眼自江南湖州霞霧山天湖庵石屋和

라 하였다. 이 범문에서는 가섭 이래 전해지던 석가세존의 정법안장인 무상법보가 이제 석옥청공으로부터 백운경한 자신에게 전승(傳承)되었음을 선언하는 장면이 전개되고, 이어서 백운화상 본인의 깨침과 관련한 수행(德行)의 방법에서 ‘마음은 無心이고, 생각은 無念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임진년(1352) 1월 12일의 깨침(大悟)이 바로 ‘무심의 참된 근원(無心無上宗)’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백운화상은, 혜능·신회가 교시(敎示)한 바와 같이, 무심·무념으로써 깨침으로 나아가는 수행을 몸소 실천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2) 백운화상은 “홍성사의 주지직에 머물 때 설한 법어”에서 돈오(頓悟)에 대하여 설한 내용을 살펴보면,

무릇 출가(出家)는 … 오로지 진실한 공부에 힘써야 참된 경지(眞實地)에 이를 수 있으니, ‘갑자기 탁 터지는 한 소리(忽然噴地一聲)’가 있어야 비로소 깨달을 몫(相應分)이 있다고 하겠습니니다. … 옛 어른[祖師]의 공안(公案)을 부지런히 정진하면, ‘홀연히 ‘탁’하는 외마디(忽然噴地一聲)와 함께 온 몸에 땀이 흐르면서 항상(向上)의 문빋장을 열어젖히고 대자유(大自在)를 누릴 것이니 … 43)

라 하여, 돈오에 대하여 “갑자기 ‘탁’ 터지는 한 소리”라고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백운화상은 돈오에 관한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적 체험을, 위의 인용문에서 “홀연히 탄성으로 자아내는 한 소리(忽然噴地一聲)와 함께 온 몸에 땀이 흐르면서 항상(向上)의 문빋장을 열어젖히고 대자유(大自在)를 누릴 것이니”라 하여, 돈오의 순간을 여실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본 장에서는 백운화상이 초록한 『직지』 상권에 채택된 ‘荷澤神會禪師

尙辭世頌陪來 十四日 師於海州安國寺設齋 小說,” 『白雲語錄』 卷下, 『韓國佛教全書』 第六冊, 657-659. “… 我本無心 有所希求 自迦葉 輾轉相承 氏 黃面老子 正法眼藏 無上寶法 今日自然而至於我. / … / 忖我德行 無德可覽 無行可觀 行是無行 行 心是無心心 念是無念念 言是無言言 修是無修修 … / … 我於壬辰年正月春 躬造室重受薰習 上元前三十三日 密戒無心無上宗. … 我今亦受傳法揭 轉教未悟如我證.”

43) 백운화상 [지], 釋璨 錄, “興聖寺入院小說,” 『白雲語錄』 卷下, 『韓國佛教全書』 第六冊, 651a-b. “蓋出家 … 但用眞實工夫 到眞實地 忽然噴地一聲 始有相應分 … 提古人公案 孜孜管取 忽然噴地一聲 通身汗流 透徹向上 關捩子 得大自在…”

(條)의 2首’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신회의 무념’에 대한 전거인 『전등록』 제30권, 『荷澤大師顯宗記』 및 독립된 論書인 『菩提達磨南宗定是非論』에서 그 원문의 상이(相異)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신회의 무념’이 『백운화상어록』에서는 어떻게 용해되어 표출되는가를 확인하여 보았다. 그 결과, 신회는 ‘무념이란 생각 [妄念]이 일어나지 않음(念不起)’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무념을 근본정신으로 삼아(無念爲宗) 無念의 근저에 있는 각자의 본성을 곧바로 자각하는 돈오견성, 즉 南宗禪을 주창(主唱)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신회의 사상은 『백운화상어록』에서도 여실(如實)하게 용해되어 ‘興聖寺入院小說’ 등에서, ‘景閑 자신이 큰 깨침(大悟)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無心·無念’을 몸소 실천·수행(修行)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등의 요지를 여러 法語에서 실제로 거듭 설법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4. 남양혜충의 無心

남양혜충(南陽慧忠: ?-775) 국사는 ‘육조혜능 문하의 5대 제자(宗匠)’ 중의 한 사람으로, 8세기 중기에 唐나라의 國師를 역임하였던 禪僧으로, 숙종(肅宗: 756-762)과 대종(代宗: 762-779) 두 황제로부터 두터운 귀의(歸依)를 받았다.⁴⁴⁾ 혜충은 담백한 본성 그대로 친진자연한 인물로 북종선(北宗禪)이 유행하던 북방에서 남종선(南宗禪), 즉 ‘혜능의 선양운동’에 앞장섰으며, 그의 禪에서는 ‘신심일여·즉심즉불(身心一如 卽心卽佛)’로써 무정설법(無情說法)⁴⁵⁾을 처음으로 설법하였다.⁴⁶⁾

44) 761년에 숙종이 그의 명성을 듣고 首都로 모시게 하고, 스승의 예를 올렸다고 함. 처음에는 千福寺에 머물렀다가, 대종 때에는 光宅寺에 머물.

45) 無情說法: 설법은 情識을 가지고 있는 有情만 하는 것이 아니라, 山川草木과 같은 정식(情識)이 없는 無情의 존재(무생물)도 역시 마음을 가라앉혀서 지혜의 귀로 들으면 소리없는 설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

46) 또한 혜충은 남방의 선승들이 경전을 重視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經律論을 펼치며 敎學도 중시하였던 인물이다.

첫째, 『직지』에 초록된 ‘혜충의 무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양혜충의 법어는 「『직지』 上卷 [慧]忠國師조(條)’에 무려 ‘9首’나 수록되어 있다. 그 중 ‘無心’이라는 용어가 직접 기입(記入)된 제8수 “부처 또한 無心이다”라는 법어가 특히 주목된다. 왜냐하면 『직지』에서 ‘無心’이라는 용어는 혜충의 법어에 와서야 비로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혜]중국사에게 영각이라는 승려가 질문하였다. “發心하여 出家하는 것은 본래 부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成佛할 수 있겠습니까?” / “마음 쓸 것 없는 것(無心可用)이 곧 성불이다” / “마음 쓸 것 없으면 누가 성불합니까?” / “마음 쓸 것 없으면 저절로 성불(成: 成佛)하니, 부처(佛)도 또한 無心이다” / “부처님은 대단히 불가사의한 분이라 능히 중생을 제도하시니, 만약 無心하다면 누가 중생을 제도하겠습니까?” / “無心이야말로 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만약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보면, 곧 이것은 有心이니 완전한 生滅이다.”

(忠國師 因靈覺僧. 問發心出家 本爲求佛 未審如何用心即得. 師云 無心可用 即得成佛. 曰無心可用 阿誰成佛. 師云 無心自成 佛亦無心. 曰佛有大不可思議 爲能度衆生. 若也無心 阿誰度衆生. 師曰 無心是真度衆生 若見有生可度者 即是有心 宛然生滅.)⁴⁷⁾

라 하였다. 이와 같이 『직지』의 중국조사 사항에서 ‘無心’이라는 용어는 혜충의 법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 혜충은 ‘마음 쓸 것 없으면 저절로 성불하니, 부처 또한 무심이다. 無心이야말로 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혜충이 말하는 ‘무심’은 육조혜능과 하택신 회가 말한 무념, 즉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念不起) 마음’이라는 정의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혜능·신회가 7세기 후기·8세기 초기에 ‘無念’이라고 지칭하였던 것을, 8세기 중기에 와서 남양혜충에 의하여 ‘無心’이라는 용어로 변화되어 지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⁸⁾

둘째, 위와 같은 ‘혜충의 무심’ 법어에 해당되는 전거문헌은 『전등록』 제28권

47)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1張 2面.

48) 그리하여 필자는, ‘혜충의 무심’은 『직지』에서 ‘無心’의 발아(發芽)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김성수, “『직지』의 내용분석을 통한 백운화상의 ‘무심’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5집(2013. 9), 197-200).

南陽慧忠國師語(條)라 할 수 있다. 즉

상주(常州)의 승려 영각(靈覺)이 [혜충국사께] 질문하였다. “發心하여 出家한 것은 본래 부처가 되려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까?” / “쓸 마음이 없어야(無心可用) 부처가 된다.” / “쓸 마음이 없다면 누가 부처가 되겠습니까?” / “無心은 저절로 이루어지니, 부처(佛)도 無心이다” / “부처님께 큰 불가사의가 있음은 능히 중생을 제도하시기 때문인데, 만약 無心이라면 누가 중생을 제도하겠습니까?” / “無心은 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만약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여기면, 이는 유심(有心)이어서 완전히 생멸(生滅)이다.” (常州僧靈覺僧問 曰發心出家 本爲求佛 未審如何用心即得. 師云 無心可用 即得成佛. 曰無心可用 阿誰成佛. 師云 無心自成 佛亦無心. 曰佛有大不可思議 爲能度衆生 若也無心 阿誰度衆生. 師曰 無心是眞度衆生 若見有生可度者 卽是有心 宛然生滅.)⁴⁹⁾

라 하였다. 위와 같은 『전등록』 중 ‘혜충의 법어’에서의 ‘무심’의 전거 내용과 백운 화상이 초록한 「직지」의 記入 내용이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두 인용문에서 혜충이 설법한 無心の 핵심은 ‘쓸 마음이 없어야 부처가 된다(無心可用 卽得成佛). 부처도 無心이다. 무심이야말로 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라 하여, ‘분별심이나 망상이 없는 마음’ 그 자체를 無心이라고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위의 인용문에서는 이른바 無心の 위력(威力)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중국 선불교에서 ‘무심’을 논한 가장 오래된 자료는 돈황의 사본문서(敦煌寫本文書)인 『無心論』이라 할 수 있다.⁵⁰⁾ 특히 이 자료에서는 ‘無心’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무심론」의 후미 부분에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없는 마음을 말한다(言無心者 卽無妄想心也)⁵¹⁾”라고 아주 명확

49) ① 原文: 『傳燈錄』第二十八, 第4張 1面. (法仁文化社 [編], 『四部叢刊廣編』 제32권 ([발행지 불명]: 法仁文化社, [발행년도 불명]), 282. 宋刻本 影印.

② 번역문: 김월운 옮김, 『전등록』, 3 (서울: 동국역경원, 2008), 500.

50) 釋菩提達磨 製, 『無心論』, 一卷. 敦煌文書 ‘Stein 5619號’, The British Museum 所藏. 黃永武 主編, 『敦煌寶藏』 第44冊 (서울: 麗江出版社, 1989), 22-28. 敦煌寫本 『無心論』에는 ‘釋菩提達磨 製’라고 그 저자명을 기입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 책은 『絶觀論』의 저자인 牛頭法融(우두법융: 594-657)의 저술이라고 알려져 있다.

51) 『無心論』, 『古鏡』, 735.

하게 정의하고 있다.⁵²⁾ 퇴옹성철은 이와 같은 『무심론』의 ‘무심’에 대하여

미(迷)는 유심(有心)이요, 오(悟)는 무심(無心)이라 하고, 『[무심]론』의 맨 끝에서 ‘무심이란 곧 망상 없는 마음을 말한다(言無心者 卽無妄想心也)’고 하였다. 망상에 추중(鹿重)과 미세(微細)가 있어서, 추중만 없으면 자재위(自在位)요, 미세까지 없으면 여래위(如來位)인 바, 『[무심]론』에서 ‘이는 여래의 진실된 법계(此是如來眞法界)’라고 하였으니, 『[무심]론』에서 무심은 미세까지 없는 여래위의 진심(眞心)으로 불지(佛地)이다. 『[육조]단경』에서 ‘이 법을 깨치니 이는 곧 무념(悟此法者 卽是無念)’라고 하였는 바, 무념은 무심이다. 안팎으로 사무쳐 밝아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면 곧 무념이다(內外明徹 識自本心 卽是無念)’고 하였으니, 달마의 무심은 佛地임이 한층 더 명백하다.⁵³⁾

라 하여, ‘무념은 곧 무심이다’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선가(禪家)에서 ‘무념’과 ‘무심’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남양혜충이 ‘부처도 무심이다. 무심은 참으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 내용은 과연 『백운화상어록』에서는 어떻게 용해되어 표현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다음 장(章)의 ‘마조도일의 무심’에서 일괄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장에서는 첫째, 『직지』 上卷 [慧]忠國師(條)에 혜충의 법어 중 제8수(首) “부처 또한 無心이다(佛亦無心)”라는 법어를 특히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직지』에서 ‘無心’이라는 용어는 혜충의 이 법어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직지』에 초록된 ‘혜충의 무심’과 관련된 법어의 典據는 『전등록』 제28권, 南陽慧忠國師語(條)이며, 『직지』에서 초록된 ‘혜충의 무심’ 내용은 이 전거의 원문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혜충의 무심’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하여, 퇴옹성철이 편역한 『古鏡』에 수록된 『無心論』에서의 ‘無心’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혜충의 무심’은 혜능 및 신회가 말한

52) 백운화상 경한이 『직지』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당시 ‘無心’이라는 용어는 중국 禪宗의 主流를 이루는 禪語錄 중에서 8세기 중기에 남양혜충에 의하여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리라고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無心’이라는 용어가 7세기 전기에 이미 우두법 용에 의하여 먼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돈황사본과 같은 위의 문헌(『무심론』)을 백운화상(경한)이 당시 고려나 중국 유학 때에 이러한 해당 자료를 접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多分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3) 退翁性徹 編譯, 『古鏡』, 739.

‘무념’의 개념과 동일함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 ‘무심은 바로 부처의 경지(佛地)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5. 마조도일의 無心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은 그의 門下에서 백장회해를 비롯하여 서당지장·남전보원·염관제안·대매법상·대주혜해 등 무려 139명이나 되는 걸출한 선사(禪師)들을 배출함으로써 중국 선종(禪宗)의 성립기, 즉 ‘조사선(祖師禪)의 시대’를 개막(開幕)한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⁵⁴⁾

중국 禪宗史에서 마조도일의 젊고 有力한 제자들인 흥선유관(興善惟寬: 755-817)·아호대의(鵝湖大義: 747-818)·장경회휘(章敬懷暉: 758-818) 등이 장안(長安)과 낙양(洛陽) 지역으로 마조의 선법(禪法)을 전도(傳道)하였고, 이 선사들은 칙명(勅命)에 의하여 황궁에 들어가 황제에게 설법(入內說法)하는 등 혁신적인 맹활약을 거듭하였다. 그 결과, 마조도일의 법력(法力)이 천하에 회자(膾炙)됨으로써 마침내 ‘육조혜능 ⇒ 남악회양 ⇒ 마조도일’로 이어지는 조사선의 새로운 법통설(法統說)이 확정되게 된 것이다.⁵⁵⁾

「직지」 상권에서 마조도일의 법문은 모두 5수가 초록되어 있다. 그 중 2수가 ‘無心’과 직접 관련이 있다. 본 장에서는 「직지」에 초록된 ‘마조도일의 무심’에 대하여, ‘마음이 부처이고, 무심이 도(道)이다’와 ‘평상심이 도이다’로 구분하여

54) 마조도일에 대한 기록은 「祖堂集」·「宗鏡錄」·「景德傳燈錄」·「宋高僧傳」·『四家語錄』(마조도일·백장회해·황벽회운·임제의현: 宋初 임제종 黃龍派 黃龍慧南(1002-1069)에 의하여 성립됨. 6권본)의 제1권인 「江書馬祖道一禪師語錄(마조록)」 등이 있다. 중국 禪宗의 사상적 측면이나 실질적인 教團의 형성 등은 마조도일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55) 그리하여 마조도일은 그의 사후(死後)에 육조혜능의 법통에서 그 적손(嫡孫: 혜능의 第3世)이 됨으로써 禪宗史에서 ‘조사선의 시대’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① 鄭性本, 「中國禪宗의 成立史研究」, 17, 21. 참고. ② 야나기다 세이잔/ 추만호·안영길 옮김, 「선의 사상과 역사」(서울: 민족사, 1992), 211. 참고).

논술하고자 한다.

5.1 ‘마음이 부처이고, 無心이 道이다’

첫째, 『직지』에 초록된 마조도일의 無心은, 『직지』 上卷 馬祖(條) 第1首'인 “마음이 부처이고, 無心이 道이다”에서

마조선사에게 어떤 승려가 질문하였다. “무엇이 부처(佛)입니까?” / “마음이 부처이다” / 또 질문하였다. “무엇이 도(道)입니까?” / “無心이 道이다” / 또 질문하였다. “부처와 도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 “도는 손을 펴는 것과 같고, 부처는 주먹을 쥐는 것과 같다.”

(馬祖 因僧問 如何是佛 答曰卽心是佛 又問 如何是道 答曰 無心是道 又問 佛與道 相去多少 答曰道是與展手 佛似握拳)⁵⁶⁾

라 하였다. 즉 마조선사는 ‘마음이 부처이며, 無心이 道이다’라고 설파하고 있다.⁵⁷⁾ 그리하여 도일은 ‘마음이 곧 부처이고 도(道)이면서 바로 無心이다’라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직지』에서 ‘無心’이라는 독립된 용어는 위 ‘마조도일’條에 와서야 비로소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마조의 무심’을 『직지』의 편찬에 있어서 ‘無心の 開花’라고 지목한 바 있다.⁵⁸⁾ 즉 도일이 말하는 無心이란 ‘중생이 깨치면 부처가 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닦아야 하는데, 마음을 닦는 수행방법이

56)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2張 1面.

57) 또한 ‘도(道)는 손을 편 것과 같고, 부처(佛)와 주먹을 쥔 것과 같다’라고 하여, ‘부처(佛) = 도(道)’라고 규정함으로써,

[[마음(心) = 부처(佛) ≍ 握拳] ≍ 手] = [手 ≍ {展手 ≍ 무심(無心) = 도(道)}]

라는 대칭되는 등식(等式)이 성립되었다. 즉 위의 등식에서 좌우(左右)의 두 각괄호([])는 완전하게 대칭되는 구조를 이룸으로써, 마조는 결국 ‘{마음(心) = 부처(佛)} = {무심(無心) = 도(道)}’라고 설파함으로써, ‘마음은 곧 부처이고 도(道)이면서 바로 무심(無心)이다’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58) 김성수, “『직지』의 내용분석을 통한 백운화상의 ‘무심’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5집 (2013. 9), 183-225.

바로 無心이다’라는 선수행(禪修行)의 실천 사항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마음이 부처이고, 無心이 道이다’라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위와 같은 마조도일의 ‘마음이 부처이고, 무심이 道이다’라는 법어의 전거는 『선문염송(禪門拈頌)』 권5, 古則 160’이다. 즉,

馬祖 因僧問 如何是佛, 答云 卽心是佛, 又問 如何是道, 答云 無心是道, 又問 佛與道 相去多少, 答云 道與展手 佛似握拳.⁵⁹⁾

라 하였다. 이 전거의 내용은 「직지」에서 초록된 위 첫째의 인용문 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⁶⁰⁾

위의 인용문에서 마조의 ‘마음이 곧 부처이다(卽心是佛)’라는 법어를 가장 명확하게 변증(辨證)할 수 있는 전거는 『사가어록』 중 『馬祖錄』의 ‘示衆’이라 할 수 있다.⁶¹⁾ 즉,

마조([馬]祖)께서는 대중에게 설법(示衆)하셨다. / “여러분! 자기의 마음이 부처임을 믿도록 하라! /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 달마대사가 남천축국에서 중국으로 와서 상승(上乘)인 일심법(一心法)을 전하여 그대들을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는 『능가경(楞伽經)』을 인용하여 중생들의 마음바탕(心地)을 확인

59) 釋慧謚 集·覺雲 撰, 『禪門拈頌拈頌說話會本』 卷5, 『韓國佛教全書』 第5冊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0), 162b.

이 고칙은 慧開가 撰述한 ‘『無門關』, 30’에도 수록되어 있음.

60) 다만 「직지」에서 ‘왈(曰)’이라고 한 부분이 『선문염송』에서는 ‘운(云)’이라 기록되었다는 차이 이외에, 그 문장의 내용은 동일함을 파악할 수 있다.

61) 『四家語錄』 중 『馬祖錄』의 ‘行錄’에서, 馬祖道一(江書道一)은 ‘남악마전(南嶽磨磚: <남악 회양선사는 마조가 좌선에만 열중하고 있자, 어느 날 벽돌(磚)을 들고 마조의 암자 앞으로 가서 그것을 갈았다. 마조가 남악께 여쭙었다.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 (남악)선사가 답하였다.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좌선만 한다고 어찌 성불할 수 있겠는가!”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소가 수레에 매여 있을 때에 수레가 가지 않는다면, 소를 떼려야 하겠느냐? 수레를 떼려야 하겠느냐?”> 즉 남악회양은 ‘부처의 좌선을 흉내만 낸다고 깨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김으로써, 좌선의 수행을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로 마조를 이끌었음을 알 수 있다.’의 奇緣으로 心印을 얻어서 남악회양의 법을 이어 받았음(嗣法)을 밝히고 있다.

(印)해 주셨으니, 그대들이 잘못 알아 이 일심법이 각자에게 있음을 믿지 않을 까 염려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능가경』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佛語心)을 으뜸(宗: 근본정신)으로 삼고 문 없음(無門)으로 법문(法門)을 삼는다’고 하셨다. / 법을 구하는 자라면 응당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하니,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으며, 부처 밖에 따로 마음이 없다. 선이라 해서 취할 것도 없고 악이라 해서 버릴 것도 없으며, 깨끗함과 더러움 두 쪽 다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죄의 본성이 공(空)임을 통달하면 생각생각 어디에도 죄를 찾을 수 없으니, 그 성품(自性)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계가 오직 마음일 뿐(三界唯心)이며, 삼라만상이 이 일법(一[心]法)에서 나온(印) 것이다.”

(祖示衆云 / “汝等諸人 各信自心是佛. / 此心即佛. / 達磨大師 從南天竺國來至中華 傳上乘一心之法 令汝等開悟. 又引楞伽經 以印衆生心地 恐汝顛倒不信 此一心之法 各各有之. 故楞伽經 以佛語心爲宗 無門爲法門. / 夫求法者 應無所求 心外無別佛 佛外無別心 不取善不捨惡 淨穢兩邊 俱不依怙 違罪性空 念念不可得 無自性故 故三界唯心 森羅及萬象 一法之所印.)⁶²⁾

라 하여, ‘卽心是佛’이라는 사항을 “여러분! 자기의 마음이 부처임을 믿도록 하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라고 천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마조의 ‘마음이 곧 부처이다’라는 주장은, 달마대사가 처음 전하였다고 하는 ‘一心法’에 근거하고, 이 일심법은 『능가경』을 그 준거(準據)로 하고 있다.⁶³⁾

위의 인용문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마조도일이 ‘법을 구하는 자라면 응당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夫求法者 應無所求)⁶⁴⁾’라는 부분이다. 특히 이 부분은 바로 달마의 『二入四行論』⁶⁵⁾ 중에서 말하는 ‘無所

62) 退翁性徹 編譯, 『마조록』, 『古鏡』, 247.

63)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사실 『능가경』은 自性淸淨의 이치(理)를 설하는 경전임을 주지의 사실이며, 마조 역시 중생들이 스스로 구축하고 있는 自性淸淨心을 확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조는 달마와 동일한 입장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佛語心)을 으뜸(宗)으로 삼고 無門을 法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능가경』을 응용하여, 위 인용문의 증거로 삼고 있다(정성본, 『中國禪宗의 成立史研究』, 187. 참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宗鏡錄』卷1에서도 ‘佛語心이란 卽心卽佛로서 지금 말하는 바로 이 心語인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음.

64) 이 구절은 『維摩經』, ‘不思議品’의 “若求法者 於一切法 應無所求”에 근거한 것이다. 즉 세속적인 사물에 집착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法 그것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執着心)까지도 떨쳐버릴 것을 가르치고 있다(정성본, 『中國禪宗의 成立史研究』, 80).

65) 『二入四行論』: 중국 禪宗의 初祖인 菩提達磨(?-528)의 語錄. ‘二入’: 理入과 行入. ‘理入’: 경전에 의해 佛法의 요체를 깨닫는 것. ‘行入’: 실천에 의해 道를 깨닫는 것. ‘四行’: 行入의 구체적인 行法을 일컫는 것으로, ① 報怨行: 인생의 고뇌를 모두 자업자득으로 여겨 감수함.

求行⁶⁶)과 동일한 교설임을 주목해야 한다. 즉, 마조의 설법은 달마의 가르침을 계승한 것임을 단적(端的)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반야사상의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보리달마의 대승선(大乘禪)은 긴 세월을 통하여 중국선종의 실천사상에 대한 근간(根幹)이 되고 있으며, 그것이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⁶⁷) 따라서 위와 같은 마조도일의 설법은 바로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은 ‘마조도일의 무심’ 사상은 「백운화상어록」에서 과연 어떻게 용해되어 표출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운경한은 ‘興聖寺入院小說’에서

[백운화상은] 법좌(堂)에 오르셔서 말씀하셨다. / “老僧(白雲)이 역대 祖師들이 쓰신 방편을 살펴보니, 깨침을 위한 근원적인 가르침을 펼친 것은 꼭 같지만, 그 공을 들인(功用) 것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山僧(백운)이 그대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드러내어 보겠습니다. / 어떤 이는 곧바로 드러내 보이고, 어떤 이는 숨겨 있게 방편을 썼습니다. [마조선사는] 때로 ‘마음이 곧 부처이다(即心即佛)’라고 하였고, 또 때로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다(非心非佛)’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뜻은 마치 거울처럼 밝고 밝았으니, ‘마조 스님이야말로 천하의 사람들을 모두 제압하였다’⁶⁸)고 하셨습니다.”⁶⁹)

② 隨緣行: 인생의 고락을 모두 인연에 의한 것으로 보아 담담하게 佛道를 닦음. ③ 無所求行: 일체의 것을 空(因緣所生)한 것이라 생각하여 탐욕심을 버림. ④ 稱法行: 法(眞理)에 합당한 생활을 함.

66) ‘無所求行’이란 ‘법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무엇을 밖에서 찾고 구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설하고 있다. 즉 일체의 가치를 외부에서 구하려는 것이나 사물에 집착하려는 것을 중지하고, 一切皆空의 진리를 깨달아 탐착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실천행이라 할 수 있다(정성본, 『中國禪宗의 成立史研究』, 80).

67) 정성본, 『中國禪宗의 成立史研究』, 80.

68) 위 인용문의 漢文 原文은 ‘馬踏殺天下人’라 하여, 이를 우리말로 直譯하면 ‘마조는 천하의 사람들을 모두 밟아 죽였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이라 할 것이다. 아마도 이는 ‘천하의 수행자들이 ‘벌레’와 같은 미물(微物)이라면 마조는 ‘위대한 깨침(大悟)’을 이룬 사람’에 비유하는 의미라 볼 수 있다. 또 이는 마치 임제선사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라는 法語의 의미처럼 ‘수행자 자신의 本性(圓成實性)이 부처와 조사만큼 청정하고 위대한 佛性을 지니고 있다’는 비유법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9) [백운화상 저], 釋璨錄, “興聖寺入院小說,” 『白雲語錄』 卷上, 『韓國佛教全書』 第六冊, 641c. “上堂云 老僧逆觀從上列祖爲人方便 一等是播揚宗教 其功用不一 山僧爲你諸仁

라고 하였다. 즉 백운화상은 “마조의 ‘卽心卽佛’이라는 깊은 뜻의 분명함은 거울처럼 밝아서 천하를 제압하였다”라고 마조선사를 직접 지목(指目)하여 설법함으로써, ‘마음이 부처이며, 無心이 道이다’라는 사항의 ‘無心’은 바로 마조의 사상을 계승하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본 절에서는 「직지」 상권에 초록된 마조도일의 “마음이 부처이고, 無心이 道이다”라는 법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필자가 ‘無心の 開花’라고 지목한 「직지」에 초록된 법어 “마음이 부처이고, 無心이 道이다”에서 마조도일은 ‘마음이 곧 부처이고 도(道)이면서 바로 無心이다’라는 입장을 나타냄으로써, 마조의 無心은 ‘중생이 깨치면 부처가 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닦아야 하는데, 마음을 닦는 수행방법이 바로 무심이다’라는 禪修行의 실천 사항을 제시하는 의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마조의 無心’에 관한 법어의 典據는 ‘선문염송’ 권5, 古則 160’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卽心是佛’ 법어를 가장 명확하게 변증(辨證)할 수 있는 典據는 『사가어록』 중 「마조록」의 ‘示衆’임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마조의 無心은 달마대사의 ‘一心法’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았다. 즉 마조는 달마의 교설을 계승하여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佛語心)을 으뜸(宗)으로 삼고 無門을 法門으로 삼는다’라는 「능가경」을 그 준거(準據)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마조도일의 사상은 달마대사의 가르침(「二入四行論」)을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3) 위와 같은 마조도일의 사상이 백운화상의 「백운어록」에서는 과연 어떻게 용해되어 표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백운화상어록」 ‘興聖寺入院小説’에서 “馬祖의 ‘卽心卽佛’이라는 깊은 뜻의 분명함은 거울처럼 밝아서 천하를 제압하였다”라고 마조도일을 직접 지목(指目)하며 설법함으로써, 「직지」에서 초록한 ‘馬祖의 無心’은 바로 마조도일 사상의 핵심을 단적(端的)으로 관통(貫通)하고 있는 정수(精髓)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一(하나)一(하나)點出看 或直示或巧施 或教說卽心卽佛 或說非心非佛 旨趣分明明似鏡馬駒踏殺天下人.”

5.2 ‘平常心이 道이다’

첫째, 백운화상이 「『직지』 上卷 馬祖(條) 제4首」에 초록한 마조도일의 “평상심이 道이다”라는 법어에 관하여 살펴보면,

마조선사가 말하였다. “도(道)는 닦을 것이 없으니, 다만 물들지만 않게 하라. 무엇을 물들음이라 하는가? 단지 ‘생사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造作) 하면 그 모두가 물들음(染汚)이다. / 그 道를 당장 알려고 하는가? / 平常心이 道이다. / 무엇을 평상심이라 하는가? / 조작(造作)이 없고 시비(是非)도 없으며, 취사(取捨)도 없고 단멸하거나 항상함도 없으며, 범부나 성인도 없는 경지이다.”

(祖云 道不用修 但莫染汚 何爲染汚 但有生死心 造作趣向 皆是染汚 若欲直會其道 / 平常心是道 / 何謂平常心 / 無造作 無是非 無取捨 無斷常 無凡聖)⁷⁰⁾

라 하여, ‘평상심이 道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⁷¹⁾ 위의 인용문에서 마조도일은 ‘道는 닦을 것이 없으니, 다만 물들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일체의 조작·시비·취사·단상·범성’ 등의 분별심[生死心]이 개입됨으로써 자성청정한 우리의 마음을 물들이기(汚染)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道)에 나아갈 수 없다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물들지 않은 마음, 즉 평상심이란 ‘일체의 조작(造作)·시비(是非)·취사(取捨)·단상(斷常)·범성(凡聖)이 없는 경지’라고 하였다.⁷²⁾

둘째, 위와 같이 백운화상이 초록한 위 인용문에 관한 전거를 검색하여 보면,

70)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3張 1面.

71) 위와 같이, 마조도일을 비롯한 祖師禪의 기본 사상은 보리달마의 「이입사행론」에 입각하여, 어디까지나 수행자가 매일의 평범(平凡)하고 일상적(日當的)인 생활상에 있어서 언제나 변함없이 실행할 수 있는 마음(心)의 자세와 실천덕목으로서 「無所求行 등의 四行」을 제시함으로써, 드디어 평상시의 마음인 ‘평상심(平常心)’을 ‘도(道)’와 연계하여 ‘平常心이 道이다’라는 명제(命題)를 이끌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72) 다시 말하여, “평상심이란 ‘聖人이니 凡夫니, 옳은 것이니 그른 것이니’라고 하는 兩邊에 치우치지 않고, 그 양면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것이 곧 평상심이라는 뜻이다. 양면을 벗어나면 양면에 집착하지 않고, 양면을 자유자재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와 같은 평상심은 곧 中道이다(무비, 「직지 강설 上」, 290).”라고 하였다.

「마조록」示衆'에서 그 原文을 확인할 수 있다. 즉

示衆云 道不用脩 但莫染汚 何爲染汚 但有生死心 造作趣向 皆是染汚 若欲直會其道 平常心是道 何謂平常心 無造作 無是非 無取捨 無斷常 無凡聖⁷³⁾

라 하여, 위 「직지」에 초록된 마조 법어의 내용과 「마조록」 전거의 내용은 서로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마조도일은, 위 인용문에 제시된 법어에 연이어서,

經에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범부의 행동도 아니고 성인의 행동도 아닌 이것이 보살행이다.” / 지금 하는 일상생활과 인연따라 중생을 이끌어주는 이 모든 것[平常心]이 도(道)이니, 도가 바로 법계(法界)이며 나아가서는 항하사(恒河沙)만큼의 오묘한 작용까지도 이 법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심지(心地) 법문을 말하며, 무엇 때문에 다함없는 법등(法燈)을 말하였겠는가. / 그러므로 일체법은 모두가 마음법이며, 일체의 명칭은 모두가 마음의 명칭이다. 만법은 모두가 마음에서 나왔으니, 마음은 만법의 근본이다. 經에서도 ‘마음을 알아 본원(本源)에 통달하였으므로 사문(沙門)이라 한다.’고 하였다. 명칭도 평등하고 의미도 평등하며 일체법이 다 평등하여 잡스러움이 없다.⁷⁴⁾

라 하여, ‘일상생활과 인연따라 중생을 이끌어주는 모든 것, 즉平常心이 바로 道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마조도일은 위의 두 인용문에서 道라는 것은, 수행자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할 일이 있으면 일하고 청소도 하고 배설도 하면서 그저 無心하게 지내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그 자체와 수행자가 외부의 사물(物)이나 경계에 대응하는 방식(應機接物) 그 모두, 즉 평상심 그 자체가 바로 道라는 사실을 마조 특유의 방식으로 설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마조는 “平常心是道”의 구절에

73) 退翁性徹 編譯, 『마조록』, 『古鏡』, 252.

74) 退翁性徹 編譯, 『마조록』, 『古鏡』, 252. “經云 非凡夫行 非聖賢行 是菩薩行. / 只如今行住坐臥 應機接物 盡是道, 道即是法界 乃至河沙妙用 不出法界. 若不然者 云何言心地法門 云何言無盡燈. / 一切法 皆是心法 一切名 皆是心名. 萬法皆從心生 心爲萬法之根本. 經云 識心達根本 故號爲沙門. 名等義等 一切法皆等 純一無雜.”

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인간의 일상생활에 철저하면서 현실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평상생활 가운데서 불교의 참된 정신을 추구하였음⁷⁵⁾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은 마조도일의 ‘평상심이 道이다’의 주장이 『백운화상어록』에서는 과연 어떻게 용해되어 표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운화상은 ‘興聖寺入院小説’에서,

[백운화상은] 법좌(堂)에 오르셔서 말씀하셨다. / “眞如의 성품은 원래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니, … 이를 ‘정법안장 열반묘심(正法眼藏 涅槃妙心)’이라 하기도 하고, 본지풍광(本地風光)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 / 이렇듯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쇠퇴해 가는 것을 깊이 슬퍼한 달마대사는 … 문자를 세우지 않고(不立文字) 교법밖에 따로 전하여(敎外別傳) 곤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直指人心) 자기의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됨(見性成佛)을 전하였습니다. / 이 ‘곤장 가리킨 마음’이라는 것은 단지 ‘평상시의 일없는 마음(平常無事底心)’으로, 거기에 어떤 비밀스런 얹(玄解)이나 이치의 길(義路)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무심(無心)하고 따로 하는 일이 없게만(無爲) 되면 본디 성품이란 저절로 펼쳐지게 되니, 어떤 것도 걸릴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머뭇이 없고 집착이 사라지면 그 덕(德)은 천지와 더불어 같고 그 밝음은 해와 달(日月)과 함께 하여, 제약(制約)이라곤 털끝만치도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끝이 없이 모두 통하게 될 것입니다.”⁷⁶⁾

라 하여, 平常心을 ‘평상시의 일없는 마음(平常無事底心)’이라고 보다 상세하게 풀어서 설법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평상심이야말로 달마대사가 곤장 가리킨 마음(直指人心)이며, 그러한 성품을 보아 드디어 성불함(見性成佛)’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백운화상은 ‘평상심이 곧 견성성불이고, 동시에 도(道)이다’라는 의미를 달마대사의 교설(敎說)을 직접 인용하면서, ‘수행자의 모든 평상(平常)의 생활에서 걸릴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는 마음(心), 즉 다만 무심(無心)하기만

75) 정성본, 『中國禪宗의 成立史研究』, 24.

76) [백운화상 지], 釋璨錄, “興聖寺入院小説,” 『白雲語錄』 卷上, 『韓國佛教全書』 第六冊, 645a-b. “上堂 眞如之性 本自圓成 … 是稱正法眼藏涅槃妙心 亦爲本地風光本來面目 / … / 是故達磨 深心悲愍正教凌替 … 不立文字 敎外別傳 直示人心見性成佛 只這直指底心 只是平常無事底心 無許多玄解義路 契合無心無爲 天機自張 無拘無執 靡往匪着 與天地齊德 日月合明 無容立毫髮見刺 唯蕩蕩然大通之.”

하면 그 德은 해와 달(日月)처럼 밝아져서 드디어 見性한다'라고 상세하게 설파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백운화상이 『직지』에서 초록한 마조도일의 '평상심이 道이다'라는 법어의 내용은 마음에 일체의 조작(造作)·시비(是非) 등의 분별심으로 오염(汚染)되지 않은 자성청정한 평상시(平常時)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법어의 전거인 『사가어록』 중 『마조록』, 示衆에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일상생활과 인연따라 중생을 이끌어주는 모든 것[平常心]이 道이다'라고 천명함으로써, 구체적인 인간의 일상생활에 철저하면서 현실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불교의 참된 정신을 추구하였던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마조의 '마음이 곧 부처이고 無心이 도(道)이며, 평상심이 道이다'라는 사상은 백운화상에게 크게 영향을 끼침으로써, 『백운화상어록』에서는 '평상심이 道이다'라는 명제의 근저(根底)에는 달마대사의 '直指人心 見性成佛'에 직접 연결(直結)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요컨대, 본 절에서는 『직지』 상권에 초록된 마조도일의 '평상심이 道이다'라는 법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직지』의 馬祖(條)에 나타나는 '평상심이 道이다'에서의 평상심이란 일체의 조작(造作)·시비(是非)·취사(取捨)·단상(斷常)·범성(凡聖)이 없는 경지임을 확인하였다. 2) 이와 같은 마조의 '平常心是道' 법어의 전거는 『사가어록』 중 『마조록』, 示衆임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전거에서 마조도일은 '일상생활과 인연따라 중생을 이끌어주는 모든 것[平常心]이 바로 道이다'라고 천명함으로써, 구체적인 인간의 일상생활에 철저하면서 현실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불교의 참된 정신을 추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마조가 말한 '平常心是道'의 사상은 『백운화상어록』에서 과연 어떻게 용해되어 표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백운화상은 '평상심'을 '평상시의 일없는 마음(平常無事底心)'이라고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며, 이 '평상심이야말로 달마대사가 바로 가리킨 마음(直指人心)이며, 그러한 평상심의 성품을 보아 드디어 성불함(見性成佛)'을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백운화상은 '평상심이 곧 견성성불이고, 즉 도(道)이다'라는 의미를 달마대사의 교설(敎說)까지 거슬러 올라가 인용하면서, '수행자의 모든 평상(平常)의

생활에서 걸릴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는 마음(心), 즉 다만 無心하기만 하면 그 덕(德)은 해와 달(日月)처럼 밝아져서 드디어 견성한다'라고 설파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백운화상이 초록한 「직지」에서 나타나는 무심의 기저(基底)에는 ‘마음이 곧 부처이고 無心이면서 道이고, 평상심이 道이다’라는 마조의 사상이 깔려 있으며, 이러한 마조 명제의 근거(根底)는 달마대사의 ‘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가르침에 직접 연결(直結)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백운화상의 無心은 마조의 ‘平常心是道’ 및 달마의 ‘直指人心 見性成佛’에 그 기반(基盤)을 두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6. 결 론

이상의 본문에서는 백운화상이 초록한 「직지」에서 ‘백운화상의 무념·무심’의 정체성(正體性)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혜능·신희의 無念’ 및 ‘혜충·마조의 無心’을 각각 제시하고, 제시된 계승·법어에 대한 각각의 전거(典據)를 검색함과 동시에 그 원문의 세부 내용들을 상세하게 고찰하여 보았다. 그리고 각 전거의 내용들이 「백운화상어록」에서 과연 어떻게 용해되어 각각 표출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봄으로써 그 서지적(書誌的)인 변증(辨證)을 시도하여 보았다.⁷⁷⁾ 그 결과,

첫째, 제2장 ‘육조혜능의 무념’에서는, 「직지」에 초록된 ‘혜능의 무념’을 먼저 제시하고 그 전거인 ‘新編 宗寶本 『六祖檀經』 叅請機緣 第六’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육조단경」 중 가장 명확한 「돈황본 단경」에서 ‘혜능의 무념’을 상세하게 고찰하여 보았다. 그 후 ‘혜능의 무념’이 「백운화상어록」에서는 과연 어떻게 용해되어 설법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① 「육조단경」에서 혜능은 ‘일체의

77) 향후 ‘황벽회운의 무심’에 대한 제목을 달리하는 별도의 논고까지 완성되면 ‘백운화상의 무심’에 대한 온전한 실체(實體)가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본고에서는 다만 ‘혜능·신희의 無念’ 및 ‘혜충·마조의 無心’에 국한하여 서지적인 변증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론만 간추려 제시하고자 한다.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진여 본래의 입장이 바로 無念이다'라고 설파(說破)하였고, '무념의 돈법(頓法)을 깨친 이는 부처의 지위(佛地)에 이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혜능의 무념이야말로 부처의 경지(佛地)로 나아가는데 가장 긴요(緊要)한 징검다리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혜능의 무념은 깨침(大悟), 즉 돈오견성을 위한 가장 긴요한 실천수행의 방법론으로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혜능의 무념'은 백운화상의 『백운어록』 '어전(御前)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뽑으라는 분부를 받고' 등에 온전하게 용해되어, '무념이야말로 깨침(大悟)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오묘한 수행 방법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제3장 '하택신회의 무념'에서는, 『직지』에 수록된 '신회의 무념'에 관한 전거는 『전등록』 제30권, 『荷澤大師顯宗記』 및 독립된 논서인 『菩提達磨南宗定是非論』임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신회의 무념'이 『백운화상어록』에서 과연 어떻게 용해되어 표출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① 신회는 '무념이란 생각(妄念)이 일어나지 않음(念不起)'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무념을 근본정신(宗)으로 삼아 그 근저(根底)에 있는 각자의 본성을 곧바로 자각하는 돈오견성, 즉 남종선을 주창(主唱)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② 이러한 '신회의 무념'은 『백운화상어록』 『興聖寺入院小說』 등에 여실하게 용해되어, '백운화상(景閑) 자신이 깨침(大悟)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無心·無念을 몸소 수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요지가 여러 法語에서 거듭 설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제4장 '남양혜충의 무심'에서는, ① 『직지』에 수록된 혜충의 법어 "부처 또한 無心이다"를 특히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직지』에서 '無心'이라는 용어는 바로 혜충의 법어에서 비로소 등장하기 때문이었다. ② '혜충의 무심'에 관한 전거는 『전등록』 제28권, 南陽慧忠國師語』임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혜충의 무심'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하여, 퇴옹성철이 편역한 『古鏡』에 수록된 『無心論』에서의 '無心'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③ '혜충의 무심'은 '혜능·신회의 무념'과 그 의미가 동일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무심은 바로 부처의 경지(佛地)임'을 파악하였다.

넷째, 제5장 ‘마조도일의 무심’에서는 “마음이 부처이고, 無心이 道이다”와 “평상심이 道이다”로 구분하여 각각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직지」 상권에 초록된 마조의 “마음이 부처이고, 無心이 道이다”라는 법어를 살펴보았다. ① ‘마조의 無心’은 바로 마음을 닦는 수행방법, 즉 실제 선 수행(禪修行)의 실천 방법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② “마음이 부처이고, 無心이 道이다”라는 법어의 전거는 『禪門拈頌』 권5, 古則 160’임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마음이 부처이다’라는 법어의 가장 명확한 전거는 『四家語錄』 중 『馬祖錄』, 示衆’임을 확인하였다. 그 내용에서 마조도일의 敎說은 달마대사의 ‘一心法’에 근거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즉 마조는 달마대사의 가르침(『二入四行論』, ‘無所求行’)을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③ ‘마조의 無心’이 백운화상의 『백운어록』에 과연 어떻게 용해되어 표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백운경한은 ‘백운화상어록』, ‘興聖寺入院小說’에서 “마조의 ‘卽心卽佛’이라는 깊은 뜻의 분명함은 거울처럼 밝아서 천하를 제압하였다”라고 마조도일을 직접 지목(指目)하며 설법함으로써, 마조의 사상은 백운에게 단적(端的)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직지」 상권에 초록된 마조의 “평상심이 道이다”라는 법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① ‘平常心’이란 ‘일체의 조작(造作)· 시비(是非)· 취사(取捨)· 단상(斷常)· 범성(凡聖)이 없는 경지’임을 확인하였다. ② ‘平常心是道’라는 법어의 전거는 『四家語錄』 중 『마조록』, 示衆’임을 확인하였다. 마조는 이 법어에서 ‘일상생활과 인연따라 중생을 이끌어주는 모든 것[平常心]이 바로 道이다’라고 천명함으로써, 인간의 구체작인 일상생활에 철저히하면서 현실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불교의 참된 정신을 추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③ 마조의 ‘平常心是道’라는 사상이 『백운화상어록』에서는 과연 어떻게 용해되어 표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백운화상은 ‘平常心’을 ‘平常無事底心(평상의 일없는 마음)’이라고 보다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며, 이 ‘평상심이야말로 달마대사가 바로 가리킨 마음(直指人心)이며, 그러한 평상심의 성품을 보아 드디어 성불함(見性成佛)’이라고 설파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백운화상은 마조의 ‘平常心是道’의 근저(根底)를 달마대사에 직접 연결(直結)하고 있으며, ‘수행자의 모든 일

상의 생활(平常)에서 걸릴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는 마음(心), 즉 다만 無心하
기만 하면 그 덕(德)은 해와 달(日月)처럼 밝아져서 드디어 견성한다'라고 설법함
으로써, 달마와 마조의 깨침(大悟)을 14세기 후기 당시에 '無心'으로 되살려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직지』에 초록된 '馬祖의 無心', 즉 '마음이
부처이고 無心이 道이다'라는 명제의 근저(根底)에는 달마대사의 '直指人心 見
性成佛'이라는 가르침에 직결(直結)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요컨대, 『직지』에서 백운화상이 초록한 '무념·무심에 관한 법어 및 계송 등'에
대하여 각 전거(典據)를 검색하여 그 원문(原文)의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백운화상어록』에서 관련 법문 등을 추출하여 변증하여 본 결과, 백운의
무심(無心)은 마조도일·육조혜능·보리달마의 禪思想에 그 철저한 기반(基盤)
을 두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景閑 (著), 釋璨 錄. "白雲和尚語錄." 『韓國佛教全書』 第六冊.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0. 637-668.

白雲景閑.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卷上·下. 장서각소장본(목판본).
釋景閑 抄錄.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韓國佛教全書』 第六冊. 서
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0. 604-636.

釋菩提達磨 製. 『無心論』 一卷. 『敦煌寶藏』 第44冊. The British Museum 所藏.
敦煌文書 'Stein 5619號'. 서울: 麗江出版社, 1989. 22-28.

釋慧謚 集, 覺雲 撰. 『禪門拈頌拈頌說話會本』 60卷. 『韓國佛教全書』 第5冊.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0.

김성수. "백운화상의 '無心'에 관한 서지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4호(2012. 11), 119-146.

김성수. "고려시대 금속활자본의 특징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세대학교 인

- 문학연구원) 제97집(2013. 4). 39-64.
- 김성수. “한국 금속활자 시원의 원천기술 및 흥덕사자의 구조법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54집(2013. 6). 75-102.
- 김성수. “「직지」의 내용분석을 통한 백운화상의 ‘무심’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5집(2013. 9). 183-225.
- 김성수. “「직지」의 인쇄상태 분석에 입각한 興德寺字의 구조형태에 관한 고찰.” 『書誌學研究』 제56집(2013. 12). 43-79.
- [馬祖道一]. “馬祖錄.” 『古鏡』. 경남 합천: 藏經閣, 불기2538. 237-288.
無比 譯註. 『백운스님 어록』. 서울: 민족사, 1999.
- 무비 스님. 『직지 강설』 상·하. 서울: 불광출판사, 2011.
- 박성배 저, 윤철원 옮김. 『깨침과 깨달음』. 서울: 예문서원, 2002.
- 法仁文化社 [編]. 『傳燈錄』. 『四部叢刊廣編』 제32권. [발행지 불명]: 法仁文化社, [발행년도 불명].
- 辛圭卓. 『圭峰宗密과 法性敎學』. 서울: 올리브그린, 2013.
- 神會. “菩提達磨南宗定是非論.” 胡適校敦煌唐寫本 『神會和尚遺集』. 台北: 美亞書版公社, 民國59(1970).
- 安法山. 『高麗白雲語錄』. 서울: 靈鑑寺, 1990.
- 야나가다 세이잔/ 추만호·안영길 옮김. 『선의 사상과 역사』. 서울: 민족사, 1992.
- 이월운. 『전등록』 3. 서울: 동국역경원, 2008.
- 鄭丙朝 編解. 『六祖檀經』. 서울: 韓國佛敎敎研院, 1998.
- 鄭性本. 『中國禪宗의 成立史研究』. 서울: 民族社, 1991.
- 鄭性本. 『禪의 歷史와 禪思想』. 서울: 三圓社, 1994.
- [慧能 著]. 法海 輯錄. “敦煌本壇經.” 『古鏡』. 경남 합천군: 장경각, 불기2537.
- 退翁性徹 編譯. 『古鏡』. 경남 합천군: 장경각, 불기2537.
- 荷澤神會. “荷澤大師顯宗記.” 『傳燈錄』 第30卷. 이월운. 『전등록』 3. 서울: 동국역경원, 2008. 661-663.

